

사회 >> 3면

장기화 되는 중동 전쟁, 풀리지 않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

기획 >> 4면

치솟는 월세가 값아먹는 우리의 청춘, '방'을 넘어 '삶'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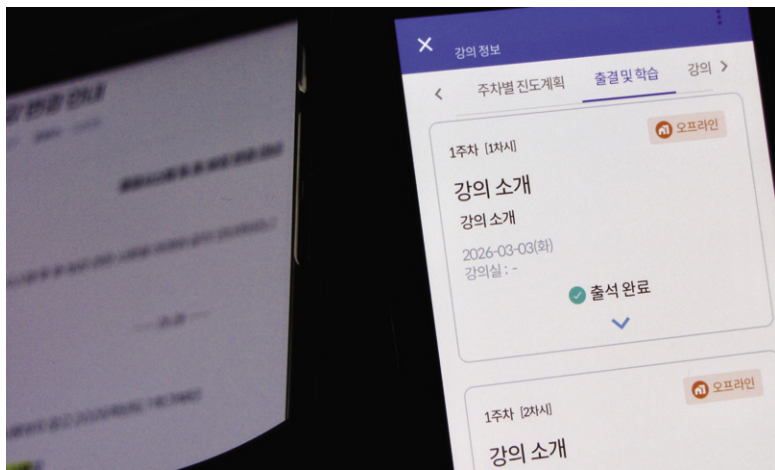
현장르포 >> 5면

세계가 사랑한 K-Pop, 그 뒤에 숨은 이야기

제598호

2026년 4월 8일(수)

통합출결시스템과 휴보강,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2월 27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26학년도부터 기존 출결앱 대신 새롭게 개발한 '통합출결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안내 사항이 게시됐다. 기존에는 출결앱을 통해 출석하

고, 본교 포탈에서 △오프라인 수업 △동영상 및 실시간 온라인 수업 △비교과 출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결시스템 통합 이전, 출결앱과 포탈을 번갈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존재했다. 교무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비교과 출결을 본교 포탈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출결은 포탈에 접속해 [내강의조회], [수강교과목] 위젯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택, '출결 및 학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석 등록 방식은 3가지로 △QR코드스캔 방식 △인증번호 방식 △수기출석 방식이 있다.

QR코드스캔 방식은 기본 출석 방식으로 QR코드가 움직이는 형태라 있으며, 모두 스캔해야 출석이 등록된다. 사용 전 카메라 접근 여부를 허용해야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다. 인증번호 방식은 교수가 인증번호 방식을 선택한 후, 표시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출석이 인증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수기출석 방식으로 교수가 직접 수강 학생을 호명해 출석 처리하는 방식이다.

출석 등록은 포탈 앱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 프로필을 선택해서, '서경포탈 킷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다. 'QR코드스캔방식'과 '인증번호방식'은 모바일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각·결석 처리 공지가 게시됐다. 지각처리 최소 시간은 30분 단위로, 30분당 0.5로 지각 점수를 반영한다. 대면수업과 실시간 강의는 교수가 직접 지각 및 결석을 처리한다. 다만 동영상강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습률이 미달할 시, 자동으로 결석 처리된다. 보건결석은 결석 처리 후, 학기 말 출결 담당자가 보

건결석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출석으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교무처는 공지를 통해 2026학년도부터 학사일정에 별도의 보강일을 지정하지 않고, 보강 수업을 학기 15주 내에서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조정했음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 종강이 6월 26일이었던 반면, 2026학년도 6월 17일로 일주일 이상 종강이 당겨졌다. 교무처는 이런 결정엔 효율적인 교육 환경 조성하고 학습 편의성 증대가 있었으며,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다. 덧붙여,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때 빼고 광낸 우리대학, 이제는 'VR'로 만나본다



▲ 출처 : (위)네이버 지도, (아래)서경대학교 홈페이지

지난 11월 우리대학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모바일과 PC 환경 모두에서 '서경대학교 캠퍼스 VR 투어'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캠퍼스 정보를 보충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동안 교내 공간을 네이버 지도 거리뷰를 통해 버스정류장 인근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폭풍의 언덕'으로 불리는 북악관에서 은주관으로 이어지는 언덕 구간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VR 투어 도입으로 △정문 △수인관 △유담관 △은주1관 △한림관 △본관 △버스정류장 △서문 △북악관 △문예관 △대입관 △청운관 △혜인관 등 주요 시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건물 출입구에 표시된 라벨을 클릭하면 내부 모습과 함께 건물 간 연결 구조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였다. 이용 방법으로는 스태그를 통한 360도 화면 이동 △스크롤을 활용한 확대·축소 △초록색 마커 클릭을 통한 이동 △미니맵 활용 등이 있다.

특히 화면 우측 상단 미니맵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 정보까지 제공해 캠퍼스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PC 이용 시에는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일반 뷰 외에도 초광각 시야 등 다양한 화면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VR 투어를 체험한 A 동문은 "학교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낯설파크 등 다양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어 신기했다"며 "졸업 이후 변화된 캠퍼스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체험기를 전했다. 본교에 재학 중인 B 학우 역시 "그동안 외부인에게 정문에서 건물까지 오는 길을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VR 투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정문도 완공 후 새로운 모습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VR 투어는 본교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대학 소개' 메뉴의 '캠퍼스 안내'에서 'VR 투어'를 선택하거나, 별도 페이지(<https://skuniv.ac.kr/campus-v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2026학년도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청흥으로 대답한 학생대표자들

지난 3월 23일 18시 30분, 우리대학 문예관 문예홀에서 2026학년도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참석인원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각 학과 회장단, 학년 대표, 분반장 및 전공운영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구진모 CO:RE 총학생회장(이하 총학)의 시작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식순은 다음과 같다. △집행부 인준 △예결산 보고 △활동 보고 △공약 보고 △사전질문 △기타 및 건의안건

집행부 인준은 정책기획국장으로 시작해 총 7명의 인준이 진행됐으며, 전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인준됐다. 이후 사무국장의 예결산 보고가 이어졌다. 활동 보고에서는 학위수여식, 새내기세로배움터, 학장

공동구매, 헤인관 사물함 대여, 생활공작소 생활용품 공동구매, 한림관 학식 메뉴 공지 등이 소개됐다.

이후 총학이 학우들과 약속한 공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고했다.

카피킬러 도입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진행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우 의견을 받았다. 총 306명의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 및 도입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신입생 프로그램 강화는 기존 '신입생 환영회'를 '새내기세로배움터'로 개편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이후 전공 설명회 및 전공 알림제 시행 예정이다. JOB FIESTA 혹은 동아리 알림제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신입생 대상 자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기

획·논의 중에 있다.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이용 편의 확대의 경우, 은주관에서 여자기숙사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학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림관 3층 스포라운

지와 같은 일부 시설을 24시간 개방할지 논의 중이다.

교내 소식 이카기브 및 소통 채널 확대도 진행됐다. 현재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총학생회 장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적으로 확



인할 수 있고, 제휴 전용 인스타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험 기간 저녁 식사제공 프로그램은 시험 기간 중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저녁을 제공 예정이다. 메뉴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추가 논의 중이다.

대동제 및 가을축제 운영을 위한 축제 기획단 모집 예정이며, 서경 Week 행사는 9월 중 진행 예정이고, 운영 방식은 추가 논의 중이다.

마지막으로, 교내 자치기구 개편이다. 2025학년도 2학기에 신설된 융합대학의 보결선거를 진행했고, 인문대 회장단 부재에 따른 연석회의 체제 운영 등을 설명했다.

이후 사전 질문 및 기타 건의안건을 받았다.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질의응답 시간은 19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제시된 방향성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우리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 202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재정지원 프로그램 실시

우리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가 202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과(부) 및 팀별 사회봉사활동'과 '미용예술 재능기부 사회봉사활동' 두 유형으로 운영된다. 재정지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팀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봉사활동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며, 학기 중 3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팀원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학과(부) 및 팀별 사회봉사활동'은 5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미용예술대학 및 미용예술학과 학생은 해당 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팀 운영 시 사회봉사지원센터장의 승인 후 봉사가 가능하며 인당 10만원, 팀당 최대 100만원 지원된다.

'미용예술 재능기부 사회봉사활동'은 미용예술대학 및 미용예술학과 재학생 등 미용예술관련 전공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타 전공 학생은 참여가 제한되며 5인 이상 신청 가능하다. 미용예술 재능기부 봉사는 각 팀당 130만원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활동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금)부터 3월 24일(화)까지였으며, 선정 결과는 3월 31일(화)에 개별 안내됐다. 선정될 경우 2026년 3월에 진행한 활동도 소급이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유형별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1부와 대표



자 통장 사본 1부이며, 선정된 팀 참가자들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동의서를 추가로 수집 예정이다. 활동 종료 후 2주 이내 지원금 사

용영수증과 함께 결과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회봉사활동 보고서 1부와 지출 내역 및 영수증 각 1부로, 첨부된 양식에 기

재하고 영수증 부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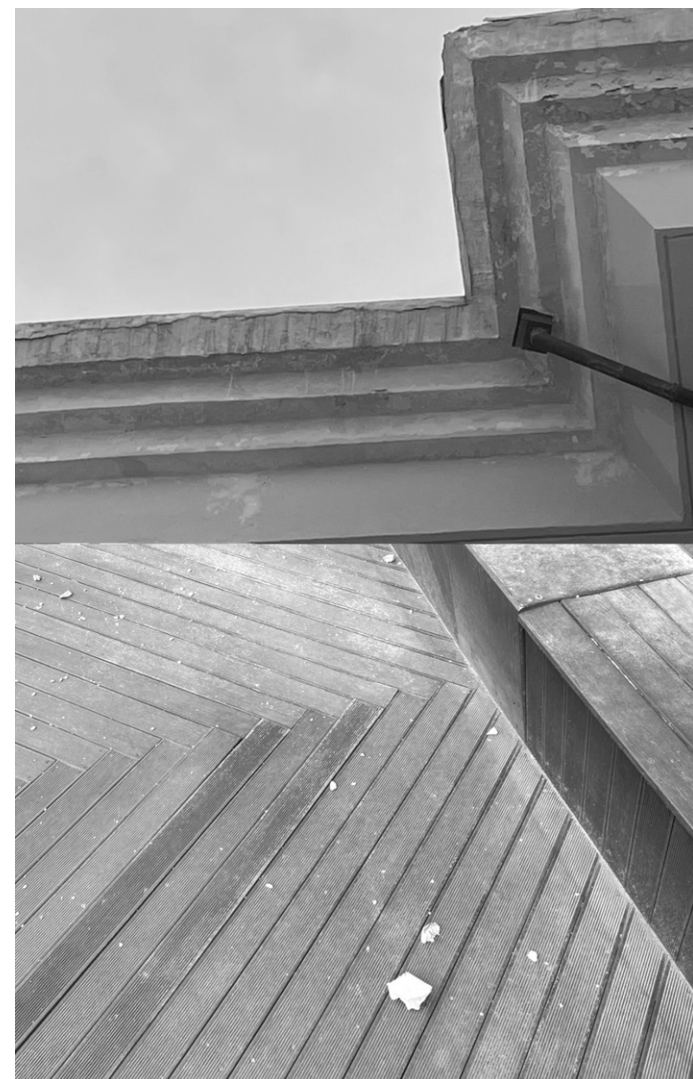
지원금은 대표 학생에게 학기당 1회 지급된다. 다만 사회봉사활동 보고서 제출하지 않거나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학과(부)별 방과후 교실 참여 학생은 제외되며, 사회봉사 학점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문의는 청운관 3층(학생처) 사회봉사지원센터(02-940-7640, volun@skuniv.ac.kr)로 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학우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낙석주의

이요한 수습기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원받자, 2026학년도 1학기 S-L 스터디클럽, 서경튜터링 선발

2026학년도 1학기 S-L 서경튜터링, 스터디클럽 선발 공고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교수학습원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S-L 튜터링, 스터디클럽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발된 팀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선발된 팀의 대표 학생(또는 팀원 1인)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대상 : S-L 튜터링, 스터디클럽 대표(또는 팀원 중 1인)
- * 팀원 총 최소 1인 이상 참여 필수
-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 15시, 3월 20일(금) 15시(총 2회 실시) : 2회 중 한번 참석
- 참여방법 : 한림관 303호 교수학습원으로 방문
- 선발명단 : 첨부파일 참조
- 담당 : (02-940-7296, skct1@skuniv.ac.kr)

2026. 03. 17.
교수학습원장

▲ 출처 : 서경대학교 교수학습원

우리대학 교수학습원이 3월 17일 2026학년도 1학기 S-L 스터디클럽, 서경튜터링(이하 스터디클럽, 서경튜터링) 선발팀을 발표했다.

스터디클럽, 서경튜터링은 매 학기 진행되는 우리대학의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은 이틀에서 알 수 있듯 진행 방식과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란에 따르면 스터디클럽은 학습자들이 공통된 학습 주제로 팀을 구성해 심화 학습을 진행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다.

스터디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의욕 △어학 점수 △학점 △자격증 등 다양한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다. 또 관심 있는 주제를 함께

탐구하는 즐거움과 학습 방법에 대한 노하우 공유는 학업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경튜터링은 스터디클럽과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튜터가 튜티를 지도한다는 점이 차별된다. 튜터와 튜티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와 유사하다. 튜터는 튜티가 학습할 주제에 대한 전문성으로 튜티를 지도하고, 튜티는 튜터를 통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학습한다.

스터디클럽, 서경튜터링은 지원 내용과 모집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스터디클럽은 팀 활동비 실비를 최대 40만원 지원받고 서경튜터링은 튜터 지도비 40만원 원을 받는다. 두 활동 모두 모든 참여 인원에게 비교과 포인트 16점을 제공한다.

스터디클럽은 △전공 △공모전 △어학 △자격증 총 4분야에서 참여자를 모집했다. 서경튜터링은 △전공 튜터링 △글로벌 튜터링(어학) △마스터 튜터링(자격증) 총 3분야에서 참가자를 모집했다.

스터디클럽의 전공과 서경튜터링

의 전공 튜터링 분야 모두 2026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과목에 대한 모집만을 시행했다. 전공 튜터링의 경우 튜티가 반드시 해당 과목 수강 신청자여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존재했다. △공모전 △어학 △자격증 △글로벌 튜터링(어학) △마스터 튜터링(자격증) 분야는 각각 3월~8월 내에 진행되는 △공모전 △어학 시험 △자격증 시험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이번 스터디클럽, 서경튜터링은 각각 18팀, 15팀이 선정됐다. 선발된 팀들은 대표 학생(또는 팀원 1인)이 총 두 번의 오리엔테이션 중 한 번은 필수로 참여해야 했다. 오리엔테이션은 한림관 303호 교수학습원에서 3월 19일, 3월 20일 15시에 실시됐다.

유승윤 기자

(organicggfry@skuniv.ac.kr)

편하게 공부해요, 2026학년도 1학기 헤인관 사물함 대여 실시



▲ 출처 : 총학생회

2층과 4층은 신설 전자사물함, B1, 3, 5층은 기존 나무사물함으로, 층별로 선착순 배정됐다. 배정 결과는 3월 9일(월) 18시 이전에 문자로 개별 안내됐다.

사물함 대여를 신청한 A(아동 23) 학우는 "통학 시간이 길어 여러 수업을 듣는 날에는 교재나 패드 등 짐이 많아진다"며 "매번 무거운 교재를 들고 이동하는 게 부담스럽고 학교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어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A 학우는 품 마감 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후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신청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정보 기재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해서 이용해 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또한 현재 2층과 4층은 전자사물함, 그 외 층은 나무사물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물함 유형이 통일되면 더 편리할 것 같다"며 "층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차이가 생기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전공 선택의 길잡이, '2026 전공 가이드북'으로 미리 보는 학과 이야기

우리대학이 2026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전공 가이드북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식으로 배포했다. 본교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전공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사회·이공계열의 학과를 미래융합학부1, 2와 자유전공학부로 개편했다.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은 1년간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적성을 탐색한 후 2학년 때 해당 전공으로 배정된다. 전공 배정 방법은 지난해와 달리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FYP(First Year Program) 포인트 70%, 교내 모의토의

20%, 교양필수 점수 10%로 합산해 전공이 배정됐다. 올해는 FYP 포인트 70%를 유지하면서 모의토의은 10%로 축소되고, 교양필수는 20%로 확대됐다. 모의토의 운영 방식도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총 4회 시행 후 최고 점수를 반영했으나, 올해는 3회로 줄여든 대신 동일하게 최고 점수가 반영된다.

'전공 맞보기' 교양 수업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전공탐색세미나 수업을 통해 교수와 해당 학과 재학생이 전공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해당 수업만으로는 전공

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이를 보완해 각 전공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전공 맞보기' 교양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미래융합대학 신입생들은 관심 있는 전공의 관련 수업을 직접 수강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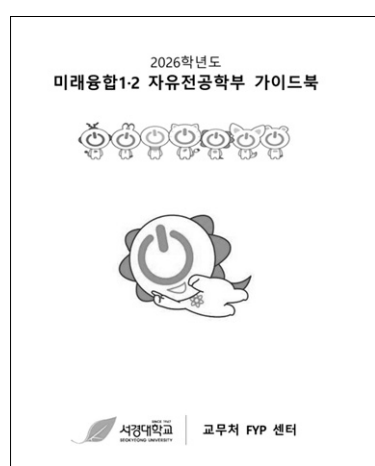
지난해 미래융합대학의 시스템은 "지난해 FYP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교내 활동을 했었는데 흥미로웠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이 있다면 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어 미흡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전공 맞보기 교양이 신설돼 신입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 같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전공 제도여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차근차근 보완하는 점이 인상깊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 출처 :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ICBM 사라진 열병식, 대신 주목받은 '김주애' 등장

경제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과 불확실성 위에 놓인 세계 경제

사회

장기화 되는 중동 전쟁, 풀리지 않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

문화

'한국인보다 한국인 같은' 여행... 이제는 '데일리케이션' 관광이 대세

연예

BTS 컴백 라이브, 전 세계 1840만 명 시청...24개국 1위

스포츠

WBC 8강 열풍에 힘입어 KBO리그 개막... 흥행 기록 세울까

자세히 보는 이슈

ICBM 사라진 열병식, 대신 주목받은 '김주애' 등장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무기 없는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4대 세습'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개최됐다. 북한의 열병식은 1948년 처음 시작됐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규모와 연출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체제 결속을 과시하고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성격의 대형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등장이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가족 코트 차림으로 등장해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열병식을 누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더불어,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도 모습을 드러내며 가족이 모 두 행사에 참석했다.

김주애가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2023년 9월 열병식에도 참석해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주애가 후계 구도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열병식의 핵심 관심사는 김주애에 대한 공식 직책 부여 여부와 '4대 세습' 공식화 가능성이다. 열병식에 등장한 김주애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최근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참고:세계일보).

열병식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부대를 비롯해 탱크 장갑사단, 보병사단 등의 부대가 참석했다. 지난해 열병식에서는 '국방발전-2025'를 주제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알려진 신형 ICBM(화성-20)을 비롯해 전차,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규모 장비가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서는 첨단 장비종대와 미사일종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위성사진에서도 대형 장비에 대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엔 작년과 달리 북한이 ICBM 등 핵심 전략자산은 등장시키지 않은 것으로 바라봤다.

지난해엔 우천 관계로 매년 진행되던 에어쇼가 열리지 않았다. 반면 이번 열병식에서는 노동당 마크와

이번 9차 당 대회를 상징하는 숫자 '9'를 형상화한 항공기 편대가 열병식장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쳤다.

이번 북한 열병식에 대해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북한이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였다.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열병식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묘한 흐름이 아닌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과 불확실성 위에 놓인 세계 경제

지난 2월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EPPA(국제비상 경제권한법)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위 결정에 대해 "IEP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을 확정했다(참고: 법률신문).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명백한 수적 우위를 지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 또한 제기됐지만 결국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스닐 고서치 스에이미 코니 배럿 스존 로버츠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 소스니아 소토 마요르 슐레나 케이건 스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현행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명확한 의회의 위임 없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1977년 IEPPA 제정 후 지난 50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IEP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며 "금액과 기간의 제한이 없는 관세 부과는 막대한 파급력을 지닌 권한"이라고 설명했다(참고: 법률신문).

보수 성향임에도 대법관 스브렛 카버노 슐레일 알리토 슐클라렌스 토마스는 "IEPPA에 관세 부과 권한은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반대



▲ 출처 : 연합뉴스

의견을 주장했다. 더불어 법원의 판단이 초래할 후폭풍을 경계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끔찍하다"고 비난했다. 이후 "우리에게 훌륭한 대안이 있고 그로 인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며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다(참고: BBC).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후 그는 무역확정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위법 판결 이후에도 상호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변함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가 변함없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참고:헤럴드경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래융합학부 1 IT계열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또 "다시 전 세계적인 협력의 시기로 돌아가면 좋겠다"며 혼란한 세계정세의 안정을 희망했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ry@skuniv.ac.kr)

'한국인보다 한국인 같은' 여행... 이제는 '데일리케이션' 관광이 대세

단체관광객의 면세 쇼핑에 의존해 온 국내 관광업계가 최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하나금융연구소는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K콘텐츠가 그려주는 관광지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행태는 단체관광객의 대량 구매 방식에서 편의점, 로드숍 등 가성비 매장과 체험형 소비로 이동했다(참고: 서울경제). 이 같은 흐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 등장했다.

데일리케이션은 일상을 뜻하는 데일리(Daily)와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데이터랩(이하 관광데이터랩)은 이를 한국인의 일상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려는 새로운 관광 형태라고 설명했다.

관광데이터랩은 관광 유형이 기존 패키지·도시 관광에서 생활·미식·지역·웰니스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관광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명동과 강남 일대는 면세 쇼핑 중심 공간에서 '생활 밀착형 소비'로 바뀌고 있다.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 등 일상 소비 공간이 주요 방문지로 떠오르며, 현지인의 소비를 따라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약국 소비가 크게 늘었다. 스포츠 콘텐츠 확산도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약국 지출액은 전년 대비 142.2% 증가했다. 이에 주요 상권에는 관광객을 겨냥한 대형 약국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체험형 소비의 확대도 두드러진다. CJ올리브영은 피부·두피 진단 서비스 등 체험 요소를 강화하며 외

국인 고객 유입을 끌어내 지난해 외국인 구매 금액 누적 1조 원을 달성했다. 의료 관광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하반기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상권의 외국인 결제 금액이 급증했다.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고부가가치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한류 확산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수출 규모는 2005년 13억 달러에서 2022년 132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K-Pop,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 소비 확대가 일상과 관광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관광데이터랩의 K-컬처 키워드 언급량 분석에 따르면 'K-공인 관광', 'K-댄스 배우기', '엔터테인먼트 방문' 등 체험형 활동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뽕지순례', '한강 야경 감상', '피스널컬러 진

단'과 같은 생활 밀착형 콘텐츠도 새로운 관광 요소로 떠올랐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도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 축제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축제'를 선정하고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금은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관광 상품 개발과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속에서 국내 관광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출처 : 와이레스

장기화 되는 중동 전쟁, 풀리지 않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



▲ 출처 : 시사IN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이란에 선제 공격을 가했다. 이란의 핵무기개발은 곧바로 UAE, 바레인, 그리고 쿠웨이트의 미군 주둔 기지와 이스라엘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 보복 공습을 진행했다. 이에 오만, 튀르키예 등 일부 중립국들을 제외한 중동 전역에 전쟁이 발발하며 지역 전쟁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1일, 이란 정부는 최고 지도자인 아이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하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며 40일간의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

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해협으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러 4일, 뉴욕타임즈는 이란의 정보부 관계자들이 간접적으로 미국 중앙정보부와 접촉해 중전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은 대화를 원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전하며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반면 하메네이의 측근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참고: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일본·영국·프랑스·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균형을 파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 역시 명확한 답

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NBC는 "미국이 결국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각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뒤이어 21일, 트럼프는 이란에 '48시간'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48시간이 지난 24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이란은 지난 이틀 동안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에게 5일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전면 부인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은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지난 24일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란 측 협상자로 거론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며 트럼프가 금융·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협상 상황과 관련해 양측 발언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군사 충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김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치솟는 월세가 값아먹는 우리의 청춘, '방'을 넘어 '삶'을 묻다

“분명 수업은
3시간 들었는데
왜 10시간이 사라졌지?”

오고 가며 사라지는 시간, 통학생들의 현실은?

“통학생의 사라진 4시간, 눈물의 통학 괴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어쩌면 말보다 밈(Meme)이 된 사진으로 많이 봤을지도 모른다. 준비 1시간에 왕복 이동 3시간을 더하면 하루 4시간이 길 위에서 증발한다는 이 ‘마법의 계산법’은 통학생들에게는 웃지 못할 현실이다. 에너지를 길바닥에서 모두 소진한 통학생들은 늘 피곤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통학의 가장 큰 장점은 거주비 절감이다. 치솟는 서울 월세를 고려할 때 본가에서 통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같으나, 그 기회비용은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시간’이다. 하루 3~4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그만큼 수면과 학습, 자기 계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기자와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 3명의 경우를 볼 때, 이는 더 여실히 드러난다. A(아동 23) 학우는 경기도 북부에 산다. 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40분 정도, 차가 막히면 2시간이 걸리며 2~3번을 갈아탄다. A 학우는 오전 9시 수업인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5시 40분에 일어난다. B(아동 22) 학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에 사는 B 학우는 학교까지 편도 2시간이 걸린다. 그녀도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6시에 일어나 버스와 지하철을 3번 갈아타며 학교에 온다. B 학우는 “2시간을 환승 없이 가면 그 시간에 무엇이라도 할 텐데 환승이 잦아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1164번을 타고 한 번에 학교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C(아동 23) 학우는 1교시 수업이 있을 때 8시에 일어난다. 기자의 경우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20분이 걸리며 2번 환승한다. 준비시간을 최소치인 40분으로 잡아야 7시 기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간의 빈부격차가 캠퍼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통학생들은 막자 시간이라는 장벽에 막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학회 토론, 동아리 활동, 빈개 모임 등에 편히 참여하지 못한다. 캠퍼스라는 공간이 주는 소속감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차단되는 것이다. 결국, 통학은 경제적 이득 대신 대학 생활의 핵심인 다양한 경험을 포기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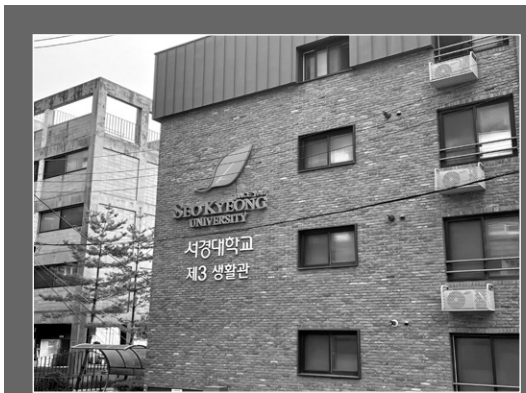
하지만 통학의 고통조차 누군가에게는 사치스러운 고민이 되기도 한다. 연고지가 먼 지방인 학생들에게 장거리 통학은 선택지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취나 기숙사는 캠퍼스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이 주변 주거 형태의 변화와 고통가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이 주거 형태는 원룸과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 주거시설들의 월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대학이 주변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

대학생 주거 문제는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사회적 과제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청년 주택 공급 및 임대료 보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캠퍼스 밖으로 밀려나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대학이 지닌 공동체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수많은 학생이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며 캠퍼스로 향한다. 이들이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오롯이 학문과 낭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대학이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경제성과 편의성 그리고 공동생활...기숙사에서의 삶



월세 60만 원 시대에 대학생들의 주머니는 나날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대학 기숙사는 1동부터 5동까지 있다. 월평균 32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자취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교내 기숙사는 경쟁률이 높아 아무리 먼 곳에서 거주하는 학우라도 쉽게 입사하지 못한다. 이번 본문에서는 교내 기숙사 외에도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들을 소개하겠다.

기자 또한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가가 경기도지만, 통학 하는데 왕복 6시간이 걸린다. 통학이 부담돼 주거시설을 알아 보던 중,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향토학사를 알게 돼 생활하고 있다.

본교 근처에 있는 향토학사는 △가평장학관 △경기푸른미래관 △연천 장학관 △재경포항학사 △평택학사 △포천학사 △화성시정학관 등이 있다.

또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도 존재한다. 동소문행복기숙사와 농협장학관이 학교 근처에 있다. 향토학사 대부분은 각 향토학사를 운영하는 시·군·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단 기숙사의 경우 시정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거나, 본인이 따로 신청할 수도 있다. 법인 기숙사는 부모가 해당 법인의 조합원이거나 연관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해당 학사들은 교내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학기 시작 전에 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선발 공고가 올라온다.

기자는 2년간 두 곳에서 거주해 봤다. 처음 거주한 기숙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였고, 현재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다. 두 기숙사는 대중교통으로 본교까지 편도 30분이 소요된다. 이런 점으로 체력적 부담이 적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숙사 생활엔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기자가 거주했던 기숙사들은 월 20만 원 안으로 자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다. 또한 성적 미달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졸업까지 재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숙사마다 다르지만, 기자의 경우, 기숙사 내 제공되는 조식·중식·석식을 이용해 식비를 아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통금으로 인해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점이고, 기숙사 룸메이트와 맞지 않는 경우 생활이 힘들 수 있다. 한정된 세탁기로 인해, 원할 때 세탁을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택배 분실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기숙사는 상·벌점 제도를 시행한다. 다소 깡깐한 부분이 존재해 답답할 수 있지만,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해서 규칙과 제도는 필수라 생각한다. 본인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거나, 단체 생활이 익숙하다면 기숙사 생활을 추천한다.

월세 60만 원 이저는 낫설지 않은 금액이다. 고물가와 전세 사기 우려가 맞물리며 전세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그 여파는 대학가 원룸 월세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평균 월세는 62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방 한 칸’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6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금액을 생활비로 바꿔 생각하면 무게감은 더 커진다. 숨만 쉬어도 다달이 60만 원이 빠져나가는 만큼, 다른 소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출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을까?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선택지는 여전히 자취와 기숙사에 집중된다. 자취는 자유도가 높지만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크고, 기숙사는 비교적 저렴하나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다. 이 사이에서 하숙과 셰어하우스 같은 공동 주거 형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식비 아끼고 잠 팔고... 그럼에도 나만의 공간이 간절한 청춘들

대학생들에게 자취는 ‘독립의 낭만’이 아닌 ‘생존의 거래’다.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학생들은 식비를 아끼고 수면시간을 줄이며, 그 대가로 ‘5평 남짓의 나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기성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6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의 50% 이상을 웃도는 수치다.

월세가 높아질수록 필연적으로 주거 빈곤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낳는다. 한국주거학회논문집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이 높은 학우일수록 식비부터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나만의 방’을 지키기 위해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학우들에게 집은 휴식처와 동시에 경제적 압박의 근원지가 된다.

학생들이 높아지는 월세에도 이를 감당하면서까지 자취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숙사의 엄격한 통금과 공동생활의 피로감을 피하려는 욕구가 경제적 부담을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6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출하고도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신축급 원룸, 풀옵션이라는 번지르르한 모습 뒤에 위반 건축물의 위험이 숨어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단속 사례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가 대학가에 만연하다. 이런 곳은 보증금 보험 가입이 어렵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반면, 월세를 낮춰 간 노후화된 원룸은 곰팡이와 소음, 치안 불안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학우들의 자생 방안도 다양하다. 해마다 다르지만 매년 총학생회에서 생활품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이나 각 대학의 주거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자취방 계약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지금 다들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첫째, 건축물대장 상단에 ‘노란색 위반 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 제79조 및 80조에 따르면, ‘불법 개조나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라’고 명시돼 있다.

둘째, 서류상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은 상가 건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목적불 부적합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약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 곰팡이 등 수리 의무에 대한 것을 계약서에 적어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덧붙여, 등기부등본에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의 확인은 세입자의 기본 권리 보호 절차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는 ‘셰어하우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이유로 대학가와 역세권 등 특정 지역에 20대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 수요도 다변화하고 있다. 원룸 자취와 기숙사 입주 중심의 주거 선택지에서, 하숙과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 주거’ 형태가 주목받는 이유다.

기자는 약 2년의 통학과 4개월의 자취 생활을 거쳐 올해 초, 우리대학 인근 셰어하우스에 입주했다. 셰어하우스는 공동 주거 형태 중 하나로, ‘코리빙 하우스’로도 불린다. 이곳의 주거 방식은 방 자체를 함께 쓰는 형태와 화장실·부엌 등 공용공간만 공유하는 형태로 다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후자가 일반적이다.

기자가 셰어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보증금과 계약기간이었다. 수도권 원룸은 보증금이 보통 500만~1,000만 원에 달해 학생이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다. 반면 셰어하우스는 보증금이 50만~200만 원 수준으로 초기 부담이 낮다. 계약 기간도 유연하다. 일반 원룸 계약이 1~2년 단위로 데 비해, 셰어하우스는 학기 단위 계약이 가능하다. 이는 교환학생이나 임대 등 1년 이내 주거지 변동 계획이 있는 경우 유용하다.

생활 편의성도 장점이다. 입주자들과 함께 부담하는 관리비를 통해 세제, 휴지, 종량제 봉투 등 공용 물품이 갖춰져 생활 부담이 줄어든다. 1인 가구로서 챙겨야 하는 사소한 비용과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효용이 크다.

그러나 ‘공유’에서 비롯되는 한계도 분명하다. 공용 공간 내 수납 공간 침범이나 청소 당면 미이행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셰어하우스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법적 권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월세 역시 기대만큼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기 지역에서는 원룸과 큰 가격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셰어하우스는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셰어하우스 ‘희망 편’을 겪고 싶다면, 입주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건물의 노후 상태와 주변 상권이다. 기자는 셰어하우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외관이나 위치가 열악한 건물을 내부 인테리어만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홍보하는 곳을 여럿 목격했다. 아무리 내부가 예뻐 보일지라도, 건물과 상권 관리가 안 된다면 해충이나 곰팡이, 주변 소음 등 추후 문제 소지가 크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인의 운영 방식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공용공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자가 거주 중인 곳은 주 1회 공용 공간 청소가 제공되고, 입주자 전용 소품 창구가 존재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최적의 선택지는 아니다. 그러나 비용, 기간, 관계라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 된다. 1인 주거의 모습이 다양해지는 지금, 자신의 생활 방식과 우선순위를 살펴 그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 출처: 잠자리하우스

대학생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본가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우들이 있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학우도 있다. 자취는 자유롭고 개인의 공간이 보장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담이 있다.

기숙사, 하숙집,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동 주거 형태에서도 생활한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렇듯 다양한 주거가 있지만 개인의 선호라기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고, 대외 활동을 하며 취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것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월세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간을 내며 아르바이트와 근로를 병행해야 하며, 학교를 가기 위해 대중교통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결국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와 불안 등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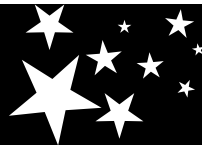
로에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온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주택 보급을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아끼기 위해 열악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월세·전세 사기의 위험 등 청년 주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는 사기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확대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세계가 사랑한 K-Pop, 그 뒤에 숨은 이야기



2026년,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등 대형 K-Pop 아티스트들의 연이은 컴백으로 음악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한때 영미권 팝스타들이 주도하던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Pop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 이제는 흐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표한 지난해 글로벌 앨범 판매 순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확인된다. 상위

10개 중 7개가 K-Pop 음반으로 채워졌고, '스트레이 키즈', '세븐틴', '엔하이픈' 등 다양한 그룹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참고: 매일경제].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Pop은 공연, 콘텐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한국 경제와 문화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동시에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문화와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그림자와 균열도 존재한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주효해지면서 한국어 가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외국인 멤버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K-Pop'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온다. '대중성'을 기반으로 입지를 다지던

음악 산업이 이제는 팬 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국내 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취재부는 K-Pop이 어떻게 세계 음악 시장을 사로잡았는지 그 역사와 성장을 짚어봤다.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음악 산업의 명과 암을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봤다.

무대 위의 시간들 : K-Pop의 변천사와 파급효과

'H.O.T'와 'S.E.S'를 시작으로 '엑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거쳐, 최근에는 '보이넥스트도어', 'TWZ', 'Hearts2Hearts'에 이르기까지 아이돌 시장은 세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아이돌의 시발점은 어디 일까.



1980년대 후반 3인조 밴드 그룹 '소방차'는 퍼포먼스와 안무를 전면에 내세워 등장, 아이돌 시스템의 전신을 마련했다. 이어 1990년대 초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힙합과 뉴잭스윙 등 당시 한국 가요계에 생소했던 '블랙뮤직'을 도입하며, 트로트와 발라드 중심의 기존 음악 시장 구조를 뒤엎었다. 당시 싱어송라이터들은 외국 장르를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Pop, J-Pop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K-Pop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체계적인 한국형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H.O.T'가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등장한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으로 대표되는 2세대 아이돌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한류 붐을 확산시키고, 아이돌 산업의 본격적인 시스템화를 이끌었다. 이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3세대 아이돌은 앞선 세대의 아시아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며 글로벌 팬덤을 확장했다.

반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IVE', '있지'로 대표되는 4세대 아이돌과 '보이넥스트도어', 'TWZ', 'Hearts2Hearts'로 대표되는 5세대 아이돌은 국내 팬덤 확보 후 해외로 진출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활동의 기본 무대로 삼고 있다. 스포츠 중심의 디지털 전략, 영어 가사 비중 확대, 해외 레이블과의 협업 등이 그 증거다. 무엇보다 2, 3세대와 달리 세대교체의 주기가 눈에 띄게 짧아져 아이돌 시장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세대가 거듭될수록 K-Pop 아이돌은 활동 무대와 전략, 팬덤 구조까지 변화해 왔다. 특히 3세대 이후 K-Pop의 인기는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 공연, 굿즈, 유료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며 한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2023년 K-Pop의 해외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4.3% 증가한 약 1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해외 공연이 47.5%, 음반 수출이 31.4%, 스트리밍이 21%를 차지했다[참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러한 수익 구조는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3년 4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32.1%가 K-Pop을 계기로 한국 여행을 관심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Pop은 관광과 소비 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K-Pop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 자산으로써 성장했다.



화려한 조명 뒤 드리워진 'K-Pop의 그림자'

K-Pop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성공을 지탱하는 구조적 모순 또한 깊어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현재 K-Pop 시스템이 아티스트의 인권과 열성팬의 소비를 희생시켜 성장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오늘날 K-Pop 앨범은 음악 매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팬들이 앨범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팬 사인회 응모권과 무작위 포토카드 수집이다. 이는 동일한 앨범을 계속 구매하게 만드는 '기획적 과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K-Pop 팬 1명의 탄소배출량을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후두시랩'의 탄소배출량 환산치에 대입하면 자동차 1대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2046kgCO₂)를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품이 된 아티스트의 육체적·정신적인 한계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완벽한 이미지만을 대중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요받는 인권 사각지대에 서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습생과 아티스트들이 겪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수면 부족은 섭식·공황 장애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부터 BBC는 K-Pop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K-Pop의 엄격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아티스트를 소모품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 순위 경쟁을 위한 음원 스트리밍 역시 아티스트와 팬 모두를 24시간

노동에 가두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라지는 한국의 정체성 문제도 짚어볼 만하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심화되면서 K-Pop에서 한국적 색채가 없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서울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대비 2023년 걸그룹 곡의 영어 가사 비중은 41.3%, 보이 그룹은 24.3%로 각각 18.9%,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표준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국내 팬과의 정서적 유대를 약화하고 한국어 기반의 독자적 문법을 파괴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공연이 중심이 되는 일정으로 국내 활동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팬들은 여차별이라며 소외감을 토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K-Pop 굿즈의 가격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비해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불량 상품에 대한 환급 거부나 조잡한 마감 처리는 고질적인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이는 열성팬의 충성심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환산하는 기업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여준다.

결국, 지금의 K-Pop은 '지속 가능한 산업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고통받는 아티스트와 소외된 국내 팬, 환경을 담보로 한 수익 체계는 언제가 정산해야 할 K-Pop의 성장 청구서다.

전 세계를 하나로, K-Pop의 긍정적 파급력

해외여행을 가면 시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K-Pop 노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K-Pop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인기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했다.

과거에는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등 2세대 아이돌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들은 수려한 외모는 물론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에게 큰 즐거움과 음악적 만족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아이돌 시장은 더욱 활성화됐고, 다양한 콘셉트의 아이돌 그룹이 잇따라 데뷔했다.

국내에서만 인기를 끈 가수가 있는 반면, 해외에서 큰 성공을 얻은 그룹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는 K-Pop 산업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경제적 효과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 복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글로벌 K-Pop 시장에는 다양한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K-Pop 이벤트 시장이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보이며 양적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활동하던 시기만큼의 경제적 파급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팬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20일 팬들의 결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같은 달 21일 진행된 광화문 공연을 시작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명 가수의 투어가 열리는 도시들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 팬들은 응원하는 그룹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나 멤버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찾아 관광을 즐긴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들은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K-Pop 공연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획, 무대 설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더불어 해당 그룹의 공식 굿즈를 비롯해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도 활성화된다.

K-Pop은 사회적 이슈를 알리고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방탄소년단은 유니세프와 함께한 'Love Myself'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폭력과 자존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아이유를 비롯한 여러 가수 역시 꾸준한 기부와 선행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많은 K-Pop 스타가 사회봉사공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K-Pop은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음악과 스타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출처: 텐아시아

'팬'이 말하는 K-Pop은

현장 관계자 못지않게 K-Pop 산업 가까이에 있으며, 그 시장을 형성하는 주체는 바로 팬들이다. 취재부는 보다 다양한 시선을 담기 위해 오랜 기간 K-Pop을 소비해 온 국내 팬들을 만났다. 아래는 취재에 응한 신동민(가명·29·남) 씨와 김나현(가명·23·여) 씨의 이야기다.

Q. 언제, 어떻게 K-Pop 팬이 됐는지.

A(신동민). 초등학교 때는 '카라'라는 그룹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는 블랙핑크 팬인 '블링크'입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지쳐있을 때 블랙핑크의 '블루야'라는 곡이 제 삶 속한 즐거움이었어요.

A(김나현). 12살 때 언니와 그룹 '비투비' 무대 영상을 보다가 민혁이라는 멤버가 너무 잘생겨 보였어요. 그 후 산업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아이돌을 알게 됐습니다.

Q. 기타 Pop과 구분되는 K-Pop만의 매력은.

A(신동민). 음악뿐 아니라 패션, 퍼포먼스 등 종합적인 요소가 결합한 점입니다. 해외 팬들의 경우, 강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K-Pop 그룹들을 좋아하더라고요.

A(김나현).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국 문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K-Pop은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Q. 오랜 K-Pop 팬으로써 체감하는 시장의 변화는.

A(신동민). '역주행'이 새로운 음악 시장의 키워드가 아닐까요? 스포츠 등의 영향으로 발매 시기와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K-Pop 음원이 순위에 오르고, 챌린지로 쓰이는 걸 보면 신기해요. 신곡 중심의 음악 시장이 보다 유연해진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A(김나현).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큼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팬 사인회가 정착됐는데, 짧은 대화를 위해 큰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포토카드와 앨범 구성을 미공개 상태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팬들은 오직 그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내부 구성조차 알지 못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Q. 해외 중심 활동에 국내 K-Pop 팬으로서 입장은.

A(신동민). 지난 2월 발매된 블랙핑크의 'DEADLINE' 앨범에서 한국어 가사는 '뛰어'라는 곡에서 '뛰어'라는 가사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상파 음악방송 활동 한번 없이 해외 개인 일정만 소화했고요. 워낙 해외를 주무대로 활동하기에 이해는 하지만, 국내 팬 입장에서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A(김나현). 소속사와 아이돌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4세대 아이돌부터는 국민의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 해외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겠죠. 코로나19 이후 돌연 해체를 발표하는 그룹들이 많다 보니 해외로 돈을 벌어서라도 계속 활동을 해준다면, 팬으로서 고마워요.

Q. K-Pop이 나아갈 방향은.

A(신동민). 꾸준히 제기되는 지적이지만, 현 K-Pop 아티스트들의 가수로서 기량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해요. 퍼포먼스 등 음악 외적 요소들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음악 자체에 충실한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개선된 라이브 실력과 음악에 있어 진실된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A(김나현). 최근 K-Pop은 너무 개인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나, 힘난 나' 같은 자기 과시적인 콘셉트들이 주를 이루면서 "자기 잘했다는 노래를 뭐 하러 들어야 하나?"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며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K-Pop은 1990년대 초 등장한 '블랙뮤직'과 한국형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결합으로 시작해 1세대부터 현재 5세대 아이돌까지 이어지며 빠르게 발전해 왔다. K-Pop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확장하며 '한류'라는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K-Pop의 확장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으로의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연습생 시절부터 이어지는 고강도 트레이닝, 관계자들의 열악한 현장 처우는 산업 관계자 모두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K-Pop은 화려한 성과 뒤에 아직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K-Pop 산업은 노동환경 개선과 다양성 존중 문화 정착 등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수익 중심의 구조 시스템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관계자의 인권 보호, 충분한 휴식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때 K-Pop은 비로소 더 건강하고 다채로운 장르가 될 수 있다. K-Pop은 한류의 선두 주자로 활약하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K-Pop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음악과 퍼포먼스가 주는 에너지로 세계를 사로잡은 K-Pop이 앞으로 끊임없이 도약해 세계 문화의 선두가 되기를 바란다.



기고칼럼



대학에서의 행복한 관계 맺기

“대학에 들어가서 만나야 할 세 인연이 있다. 좋은 교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대학가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내 대학시절은 어땠을까? ‘좋은 배우자’만 빼고 나머지 둘을 만났으니 그런 대로 성공이다.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는 대학 시절 4년이다.”

대학시절을 회고하면서,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첫째,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특히 훈민정음과 정역 연구의 대가였던 특산이정호 선생님과 인연은 특별하다. 매 학기에 한문 강의를 들었는데, 한문을 좋아했던 나로서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어려운 대목이 있으면, 반드시 연구실로 찾아가서 여쭈었다. 그러니 학점이 나쁠 리 없었다. 거의 모두 100점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내가 졸업할 당시,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연구소장이 되셨고 나를 연구원으로 채용해 주셨다. 그 덕택에 대학원도 다닐 수 있었다. 지금 내가 가진 한문 실력은 대학시절에 이 선생님한테 6학기 동안 들은 것이다. 잘한다고 평가해 주니 더욱 더 열심이었던 듯하다. 그 실력으로 번역한 ‘사씨남정기’는 천재교과서 고고문학 책에 실리기도 했으니, 선생님과의 관계는 내 학문 여정에서 각별하다.

다른 과목 선생님의 수업도 그렇게 들었다. 국어가 좋아서 입학해 그런지, 모든 과목이 재미가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각이나 한문 강의를 들었는데, 녹음기가 비쌌던 때라, 철저히 필기하였으며,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반드시 질문했다. 그렇게 공부하니, 시험이 닥쳐도 걱정이 없었다. 죄다 듣고 이해했으니, 내가 아

는 것만 문제로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경청하며 질문도 자주 하니,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눈에 들어 수업시간이 즐거웠다.

선생님들의 회갑기념논문집 발간 때면, 항상 총무 일을 도맡았다.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 나중에 교수가 될 무렵에 보니, 그 모든 수고를 선생님들이나 동료와 선배들이 그 공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둘째, 대학 다니는 동안, 선배들을 잘 따랐고, 선배들도 나를 잘 챙겨 주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때는 선배는 하늘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대학에 들어온 나로서는, 선배들을 깎듯이 대했다. 모든 일을 물어보면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선배들과 가까웠다. 나는 영

어 실력이 약했는데, 영문학과 어떤 선배는 내가 교지에 수록할 논문을 쓸 때, 나를 위해 기꺼이 영어 원서를 번역해 주기도 했다. 특하면 밥도 사 주었다. 지금은 캐나다에 이민 가 있는 국문학과 선배 하나는 전공과목 교재를 모조리 물려 주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던 내게는 큰 힘이였다.

셋째, 좋은 동료와 후배를 만나 즐거웠다. 내가 다닐 때는 야간이라서, 피동갑 동창들도 있었다. 1인3공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둘째, 대학 다니는 동안, 선배들을 잘 따랐고, 선배들도 나를 잘 챙겨 주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때는 선배는 하늘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대학에 들어온 나로서는, 선배들을 깎듯이 대했다. 모든 일을 물어보면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선배들과 가까웠다. 나는 영

이복규 (문화콘텐츠학부 명예교수)

스러웠다. 문학회, 기독교학생회, 주로 이들 동아리에서 문학과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다. 타향살이하는 내게 큰 위로였다. 지금까지도 그 인연은 계속되고 있어, 노후가 외롭지 않다.

다섯째, 내 절친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산다. 대학다닐 때 사귀어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돈을 벌면서 아내를 일본에 유학 보내고, 그다음에는 아내가 직장을 다니며 남편을 유학 보냈다. 부부가 박사 학위를 받아 아주 행복하게 산다.

“전생을 묻지 마라 / 금생이 전생이다 / 후생을 묻지 마라 / 금생이 후생이다.”

최동호 시인의 명시다. 그렇다. 대학 다닐 때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졸업 후의 인생이 결정된다. “대학생활이 가장 행복했다.” 훗날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기자의 눈 |

e스포츠 대회와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

혹시 게임을 해본 적 있는가? 모바일 게임부터 컴퓨터 게임까지, 전자기기와 통신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나 버추어 피터 같은 고전 게임을 하거나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이 현재 인기 있는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다양한 게임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관심이 모인 게임들은 종종 독자적인 대회를 열기도 한다. 오늘은 많고 많은 e스포츠 대회 중 △LoL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중 3개 게임의 대회만 살펴보자.

LoL은 출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MOBA(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아레나) 게임이다. 그 명성만큼 LoL e스포츠의 가장 큰 대회인 리그오

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월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다.

월즈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난 만큼 월즈에는 정말 다양한 서사와 기록이 남아 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전설적인 플레이어가 있다. 바로 ‘Faker’ 이상혁 선수의 이야기다.

이상혁 선수의 업적을 나열한다면 페이지가 부족하기에 간단히 몇 가지만 알아보자. 이상혁 선수는 월즈 △최고 우승 팀 △최다 우승 팀 △최다 우승자 △최다 출전자다. 그의 우승 기록만큼이나 찬란한 것은 그의 스포츠맨십과 게임을 대하는 태도다.

물론 e스포츠는 경쟁이고 상대방과의 대결로 승패가 갈라다 보니 언젠나 좌절과 행복을 동시에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태도다. 최

고의 선수가 태도 또한 정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e스포츠에 스포츠맨십이라는 선순환을 불러온다.

이제 배틀그라운드와 e스포츠 대회를 알아보자. 배틀그라운드는 한국의 개발사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한 슈팅 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 또한 다양한 대회를 운영하지만, 연말에 진행되는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이하 글옵)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2018년에 출범해 올해 8주년을 기념하는 글옵은 많은 배틀그라운드 프로의 꿈에 무대로 불린다.

글옵 또한 우리나라 팀과 플레이어들의 기록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Gen.G가 총 2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팀 기록을 세웠고 ‘Loki’ 박정영 선수가 3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자 칭호를 새겨냈다. 마지막으로 오버워치는 블리자드

가 개발한 FPS 게임이다. 오버워치의 e스포츠는 정말 많은 여객적을 겪고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본래 오버워치의 e스포츠 대회였던 오버워치 리그가 2023시즌을 마지막으로 해체되며 오버워치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큰 우려와 걱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이하 올챔스)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다시 한번 오버워치 e스포츠의 부흥을 이끌었다.

올챔스는 창설된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별다른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전까지 존재했던 오버워치 리그를 본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버워치 리그(이하 리그)는 출범 시점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이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초석을 세웠다. 이후 마지막 시즌까지 모든 리그 우승 팀에 반드시 우리나라 선수가 소속

해 있었다.

정말 다양한 e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e스포츠의 장래가 언제나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점차 감소하는 인제들과 새로운 게임의 등장은 고려했던 우리나라 e스포츠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e스포츠 연맹에서 주최하는 e스포츠 월드컵은 e스포츠 중추국인 우리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e스포츠는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와 e스포츠의 시작부터 쌓아 올린 이야기는 분명 빠르게 진행되는 트렌드를 넘어 그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나라 e스포츠의 부흥을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무리한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기자의 눈 |

쓸모를 묻지 않는 순간

“취미가 무엇인가요?” 직장 동료와의 대화나 소개팅 자리, 심지어 자기소개서에서도 빠지지 않는 질문이다.

한때 즐거운 마음으로 답하던 이 질문에 요즘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잡자기’나 ‘게임’, ‘유튜브 시청’ 같은 답을 내놓으면 상대가 나를 한심하게 볼 것 같다는 두려움마저 든다. 취미를 묻는 말은 어느새 나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느껴진다.

과거에는 취미를 묻는 말이 지금 만큼 흔치 않았다. 오히려 여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대다수 국민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또 “늘어난 수명과 줄어든 노동시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여가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에게 여가는 배워야 할 대상이었던 셈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전시 관람, 운동, 여행, 원데이 클래스 수강 등 저마다의 취미를 즐기는 ‘취미부자’ 시대가 됐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선택지는 넓어졌고, 여가를 누리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대하는 방식이다. 취미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활동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시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취미의 노동화’로 설명할 수 있다. 책 『노동의 상실』은 취미와 흥미가 수익화의 대상이 되고, 그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좋아하는 일이 수익과 경력에 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된다.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활동이 어느새 결과를 요구받는 과제로만 남는 것이다. 나아가 ‘취미로도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압박은 여가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대학생에게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학생들에게 취미는 마치 ‘자기 개발’과 동의어처럼 인식된다. 봉사는 자소서를 위한 소재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대외 활동 합격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됐다. 디지털 환경이 소용 창구가 되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된 점도 한몫한다. 내적 충만과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활동이 어느 순간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취미의 본질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타인의 인정이나 성과가 없으면 내가 보낸 여가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흥미도 쉽게 사라진다. 결국 우리는 잘

하는 취미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활동은 빠르게 포기한다. 취미마저 효율과 생산성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취미가 다시 취미로 남기 위해서는, 그것을 평가의 대상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남에게 보여주지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되돌릴 때 비로소 취미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빠져나오는, 당신의 진정한 취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수습의 눈 |

돌아온 야구의 시간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얼마 전 본 슬로건에서는 분명 1,000만 관중의 시대였는데 어느새 프로야구는 1,200만 관중을 넘어서 1,500만 관중을 바라보고 있다. 어린 시절엔 경기 5분 전 할 일이 없어 심심할 때 느긋하게 표를 구하고, 마침 경기 후반부 시간대에 야구장 근처에 있어 공짜로 야구장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런 추억을 뒤로하고, 야구는 어느새 눈물 나는 피켓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스포츠가 돼버렸다.

프로야구가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프로야구에도 양

호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한 때 500만 명을 넘나들던 연간 관중은 200만 명대로 추락했고, 지방 구장에서는 1천 명이 채 되지 않는 관중 앞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이 많았다. 프로야구는 흥행 회복을 위해 단일 리그 체제 대신 양대 리그 체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다. 하지만 새 전략은 역효과로 작용해 팬 혼란을 유발, 기존 팬의 이탈에 불을 지피며 흥행 부진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후 승부조작, 심판의 급진 요구 등의 비윤리적인 사건들과 국제 대회의 부진이 겹치며 한국 야구의 위기가 도래했다.

프로야구는 선수들의 국제 대회 활약 덕분에 관중 수가 서서히 회복되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관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2023년 800만에서 2024년 1,000만 그리고 2025년 1,200만 시대를 맞이했다. 흥행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건 야구장의 열기였다. 주변인의 권유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야구에 입문한 사람 중 약 68%가 응원 문화에 매료돼 야구장에 재방문하며 리그의 흥행에 기여했다[참고: KBO]. 또한 20·30 여성 팬의 유입에 힘입어 각 구단의 마케팅팀은 다양한 이벤

트와 타 기업과의 협업 등을 진행하며 야구의 인기 유지에 힘을 보탰다.

야구 입문자의 발걸음을 붙잡은 또 다른 매력은 구장별 먹거리다. 잠실야구장의 김치말이 국수가 소설미디에서 유행하면서, 각 구단의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의 야구장 먹거리를 추천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고인적인 호기심으로 야구에 입문한 사람 중 약 68%가 응원 문화에 매료돼 야구장에 재방문하며 리그의 흥행에 기여했다[참고: KBO]. 또한 20·30 여성 팬의 유입에 힘입어 각 구단의 마케팅팀은 다양한 이벤

트와 타 기업과의 협업 등을 진행하며 야구의 인기 유지에 힘을 보탰다.

야구 입문자들에게 다시 찾아올 때력을 선사한다.

3월이 다가오면 평소 들던 노래들이 담겨있던 플레이리스트는 뒤로하고, 시즌이 끝나며 묵혀둔 응원가 플레이리스트를 꺼낸다. 그 속에는 아쉽게 작별한 선수들의 응원가가 남아 있다. 그렇게 추억을 회상하며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다 보면, 새로운 선수들과 새로운 응원가가 나타나 마음을 먼저 야구장에 보낸다. 이렇게 예열된 마음으로, 다시 야구장으로 갈 준비를 한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만/파/식/적

나에겐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행동이다. 서로를 죽이고 유린하며 서로의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본 글에서 다룰 그는 사람으로써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다. 민간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로 민간인이 있는 빌딩을 충돌시킨 것이다. 이 모든 행위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다.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가 일으킨 911테러는 세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큐멘터리 <터닝 포인트: 9/11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은 911테러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나는 911테러가 테러리스트들이 일으킨 사건으로만 여겼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 다크를 통해 테러의 이유를 생각해봤다.

이 사건의 발단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상황 전환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자신의 지리를 지키기 위해 태도를 변화하면서 시작됐다. 반미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경제를 강타하려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2,000여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미국의 역사가 뒤바뀐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이었다. 테러가 끝나고 곧바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미국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다.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은 10년 뒤 미국에 의해 사살된다.

이 다크멘터리를 보면서 테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서까지 관심을 받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오사마 빈 라덴은 원래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변하자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자 반미 세력으로 전환한다. 중동에 진출해 위협이 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은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냈다. 이 점이 나에게 가장 아쉬웠다.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몇몇 이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채 죽었다. 편안하게 가던 비행기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은 생각만 해도 막막해진다. 그렇다면 이 테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 테러사건의 주요자들을 모두 제거했다. 이후 테러 전문 작전 수행을 하는 등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중동,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 모두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 중동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해결한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다.

테러 행위는 가해자만 있다. 그곳에 있는 시민들과 테러범들이 사는 곳에 있는 시민들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상, 돈, 권력 등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고 죽는다.

현재에도 이어지는 미국-이란 전쟁을 보면 민간인들이 피해보는 장면을 볼 때마다 무섭고 정말 안타까운 감정이 든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두가 불안정하고 어지럽다. 시간이 많이 지난 911테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사설

PDF로 대체된 교재들...
페이퍼 리스의 시대

“수업 자료는 PDF 파일로 올려 드리니 교재는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무거운 수업 교재가 가방 속에서 사라지며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다. 학생들의 가방은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채워지고, 화면을 두들기는 소리와 타자 소리만이 강의실에 울린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이유는 7년 전 코로나19가 번지면서 학교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면서부터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PDF와 같은 디지털 자료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그 결과,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디지털 교재에 익숙해진 것이다.

대학들은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에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페이퍼리스 캠퍼스 구현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페이퍼리스 캠퍼스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행정과 수업에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디지털 교재의 확산이 대학들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PDF 파일을 선호한다. 도서에 비해 휴대성이 좋고, 여러 번 필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외도 대학생활 플랫폼인 ‘에브리타임’에서 2025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학생 200명에게 실시한 ‘PDF 파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이책 가격이 비싸서’(68%), 이어 ‘공식 전자책의 부재’(52.5%), ‘절판·해의 교재 등 접근성 문제’(31%) 순으로 나타났다.

교재의 평균적인 가격은 2만 원에서 5만 원 선이다. 만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교재라면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있다. 교재를 한 권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보니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학생들은 교재를 스캔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지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일 교재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에브리타임을 통해 중고로 교재를 구매하는 방법이다. 필기와 구경짐 등 사용감이 있지만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본교와 제휴해 도서 할인을 진행하는 서점에서 구매하는 방법이다. 우리대학은 알라딘과 제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학생증을 제시해 할인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교 학습정보관에 ‘강의도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다. 강의도서 서거나 일반 서가에서 대출할 책을 고른 후, 데스크에서 강의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한 학기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만일 원하는 도서가 없다면 학습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서관서비스], [자료구입신청], [직접신청], [용도별 [강의도서]로 선택 후, 도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우선정리도서]를 선택하면 신청한 자료는 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오늘의 책

멈춰버린 시간 속 흘러가는 관계 - 그해 봄의 불확실성 시그리드 누네즈



출처 : 예스24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평범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시그리드 누네즈는 미국의 소설가로, 1995년에 '신의 숨결 위의 깃털'이라는 첫

소설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8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2018년 '친구'로 전미도서상을 받고, 2020년 미국의 구겐하임 펠로우 등을 수상했다.

책은 1부, 막간,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봉쇄된 텅 빈 맨해튼에서 소설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친구들, 글쓰기와 삶을 이야기한다.

막간에서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루소, 고다르 등의 예술가와 작가들의 글쓰기와 사유에 관한 문장을 인용한다.

2부에는 원래 집주인 부부 대신 영무세를 돌봤던 청년이 등장한다. 소설가는 청년과 넓은 집안에서 거의 마주치진 않지만,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청년에게 불편함을 느낀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 모두가 예민해진 상황, 소설가는 청년을 피해 외출하며 만난 사람들이 달라진 것에 공포심을 느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를 겪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도움을 베풀 대상을 찾아내는 것, 그게 많은 병들을 고치는 약이라고 한다. 그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시키고, 애도와 슬픔, 상실감을 어루만져 준다"고 한다.

코로나로부터 거의 7년이 지났다. 코로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기자는 당시의 기억은 마치 건너뛰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느껴진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오늘의 전시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들 -



지난 2024년, 인상주의는 150주년을 맞이했다. 1874년 4월, '클로드 모네와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 등 살롱에서 작품 심사에 떨어진 화가들이 사진작가 나다르의 작업장에서 연 앙데팡당 전시회가 첫 인상주의 전시의 시작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되 사물을 본 순간 느껴지는 인상을 포착해 자신만의 색채와 빛으로 표현했다.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고흐 그리고 세잔

들의 느낌대로 그려낸 그림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의 작품이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고흐 그리고 세잔》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전시는 △수면 풍경과 반영 △도시 풍경, 자연, 인물이 있는 정경 △인물과 정물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1·2 전시실에서 원화를 관람한 뒤 미디어 전시실에서 원화를 바탕으로 만든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된 그림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의 소장품들로 모네의 수련 연작 중 하나인 <수련이 있는 연못>도 이곳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5층 영상관에서 전시 관람 시간 중 상시 반복 상영되는 이번 전시와 인상주의 화가

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에서 평일 3회, 주말 2회 도슨트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도슨트 해설 프로그램이 열리는 시간은 제외하고 영상이 상영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4월에는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 10시 30분/13시 30분/15시, 주말은 10시 30분/15시에 해설 강의가 있으니 더 풍성한 전시를 원하는 독자들은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빛이 스며드는 순간, 세계는 인상으로 물든다.” 전시 안내문에 적힌 문구처럼 “빛으로 세상을 보는 화가들의 시선”을 이 전시에서 즐겨보길 바란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 12. 19. (금) ~ 2026. 05. 31. (일)
· 전시장소 : 서울 노원구 중계로 181 노원 아트뮤지엄(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 관람시간 : 화~일, 10: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매표 및 입장 마감 18시)
· 관람비용 : 성인 12,000원, 청소년·어린이 9,600원

오늘의 장소

서울 마지막 간이역의 새로운 시작 - 화랑대 철도 공원



1939년 경춘선의 '태릉역'으로 개통된 화랑대역은 1958년 육군사관학교의 이전과 함께 '화랑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역, 화랑대역을 보존해 조성한 공원이 바로 화랑대 철도 공원이다. 화랑대역 6호선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공간에서 옛 선로를 따라 길게 꾸며진 공원을 마주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제300호로 지정된 화랑대역사는 철도의 역사와 당시 역사 안의 풍경, 실제 사용된 기차표나 깃발, 역장 제복 등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화랑대 철도 공원의 야외공원으로 나오면, 공원을 가로지르는 선로들 위에 전시된 여러 전차가 보인다. 대한제국 최초의 전차를 복원한 차량이나, 히로시마 시내 노선에서 운영했던 히로시마 전철 전차 등 실제 차량이 전시돼 있다.

며 휴식과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한 트램 도서관이 있다. 주로 동화책과 큰 글자 책이 배치되어 있어 옛날에 읽었던 책을 발견하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화랑대 철도 공원은 서울 최초의 불빛 정원인 '노원 불빛 정원'과 이어져 있어 야간에는 낮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 주 소 : 서울 노원구 화랑로 608
· 운영시간 : 24시간 개방
· 관람비용 : 무료

오늘의 영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 만약에 우리 (2025)



출처 : 아이뉴스24

"가장 초라했던 그때, 가장 눈부시던 우리"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휴학생 은호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서 건축가를 희망하는 대학생 정원과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다.

없는 길에 접어들고, 은호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한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던 정원도 은호의 아버지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게 된다.

넉살 좋은 은호의 아버지는 정원이 어색하지 않도록 먼저 말을 건넌다. 그 과정에서 은호와 정원은 같은 대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은호의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정원을 초대해 함께 식사한다. 이후 정원은 자신이 어린 시절 몸담은 보육원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서울로 돌아온 은호는 싸이월드를 통해 정원의 근황을 발견한다. 우연을 가장해 주유소를 찾은 은호는 정원과 다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점차 친해지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중 은호와 정원은 2010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생중계로 보게 된다. 종소리와 함께 계획되지 않은 입맞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친구에서 연인으로 바꿔 놓는다.

은호는 원하던 게임 회사에 입사하지만, 시장의 폭력을 견디며 힘겨운 생활을 한다.

정원은 편입을 목표로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던 둘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연애 초반의 실패와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측면이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 낸다.

결국 갈등은 극에 달하고, 은호의 자격지심이 폭발하면서 두 사람은 지하철역에서 허무한 이별을 맞이한다. 그로부터 10년 후 둘은 호찌민에서 인적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재회한다.

은호는 정원에게 오랫동안 묵혀왔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만약에 우리..."

본 영화는 2018년 개봉한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원작의 감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9년 이후 7년 만에 멜로 장르 최고 관객 수 260만 명을 돌파해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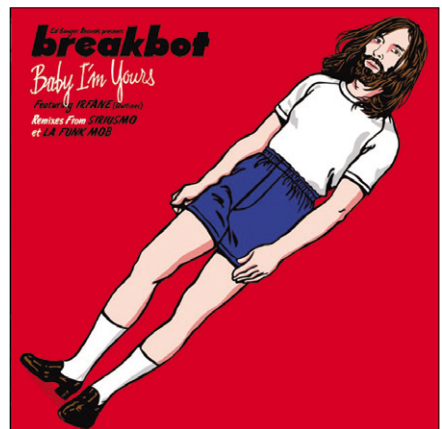
영화 <만약에 우리>를 통해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음악

봄과 함께 찾아온 다양한 사랑의 음악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싱그러움 봄의 향기가 올라오고 있다.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고개를 내민 봄은 그 향기만큼이나 기분 좋은 사랑을 동반한다.



출처 : 스포티파이

♪ <Baby I'm Yours> - Breakbot

"You were the clock that was ticking in my heart Changed my state of mind But love's so hard to find"

수많은 만남과 이별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이 노래는 자신의 사랑을 심장에 생긴 시곗바늘에 빚어냈다. 상대가 떠나자, 자신의 시간도 끝났다는 재치 있는 표현이다.



출처 : 스포티파이

♪ <Roommates> - Malcolm Todd

"I wana tell you I love you but, I cannot reach you I'm learning to lose, that's the thing they don't teach you"

흘러가는 시간 위를 유랑하다 보면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는 한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서로가 상대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가사는 둘의 사랑과 이별을 동시에 강조한다.



출처 : 스포티파이

♪ <The Less I Know The Better> - Tame Impala

"Oh my love, can't you see yourself by my side? I don't suppose you could convince your lover to change his mind"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사랑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찾아온다. 음악의 주인공에게 사랑은 한순간에 찾아왔다. 자신이 옆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애매한 미소를 짓게 한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금' 의환향

지난 2월 26일 이탈리아에서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3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쇼트트랙은 여자 3,000m 계주와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쇼트트랙 3,000m 계주는 4명의 선수가 총 27바퀴를 나눠 도는 단체전으로, 팀워크와 순간 판단, 마지막 스피드가 중요한 종목이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선두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기 중반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졌고, 최민정이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경기 양상이 펼쳐졌다. 하지만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가 추격을 이어갔고, 결승선을 4바퀴 남기고 심석희가 최민정을 힘껏 밀어주며 캐나다를 제쳤다.

이탈리아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대표팀은 4분 4초 014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금메달은 8년 만에 여자 3,000m 계주 정상 탈환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동시에 최민정은 이 경기로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 7개(금 4, 은 3)를 기록하며 한국 선수 최다 메달 기록을 달성했다. 한편, 최민정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후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며 12년 간의 국가대표



출처 : getty Images

선수 생활에 막을 내렸다.

김길리는 여자 1,5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길리는 경기 초반 중위권에서 출발해 체력을 유지하며 기회를 노렸고, 후반부 추월 타이밍을 잡아 선두로 올라갔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약 2분 20초대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김길리의 금메달과 최민정의 은메달로 원투 파니시를 완성했다.

한편 '쇼노보드 하프파이프 여자' 종목에서는 최가온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프파이프는 약 30초 동안 5~6회의 점프를 수행하며 점수를 받는 종목으로, 기술 난도와 착지 안정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킵 1080(세 바퀴)'를 시도하다가 머리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칠 뻔했다. 2차 시기에서 부상의 여파로 80점대 점수에 머무르며, 기권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엄청난 대역전극을 선보였다. 높은 공중 체공과 안정적인 착지를 보여주며, 회전 기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이상인 미국 선수 '클로이 갱'을 2점 차이로 제치고 90.25점을 기록해 1위에 올라섰다. 그녀의 메달은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실상 종목 금메달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번 성과로 최가온은 'NBC가 선정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 전반기 최고의 10대 순간'에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준 과동시에, 실상 종목까지 경쟁력이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향후 '알프스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